

1

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특별 프로그램

X

Special Opening Programs for the MMCA Seoul

3

D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

2014년 1~3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특별 프로그램

3X3D

기간

2014년 1월 22일(수) - 3월 16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후원

 KAFA
Korean Academy of Film Arts

관람

무료

(당일 미술관 관람권 소지자에 한하여 선착순 입장)

상영시간

수요일 ~ 일요일 (오후 1시 30분, 4시)

1985년 12월 파리의 그랑카페에서 루미에르 형제는 공개 시사회를 열었다. 이날 상영된 〈시오타역에 도착하는 기차L'arreeve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t, 1985〉를 본 관객들은 스크린 속 기차가 프레임 밖으로 돌진할 것 같아 비명을 지르며 의자의 밑으로 피하고 숨었다. 사실적인 재현과 프레임 너머 관객의 상상력이 더해져 영화만의 미학과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영화는 인간이 지각하는 경험을 자연적이고 사실적으로 재현해주는 시청각 매체로 발전해 왔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흑백영화에서 컬러영화로 과학적 인식과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인간의 경험을 재현하려는 출발에서 3D입체영화도 탄생되었다. 우리의 두 눈은 가로 방향으로 약 65mm 떨어져 양안시차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입체감의 중요한 요소로 좌우 개별적으로 들어온 두 개의 영상정보가 뇌의 영역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융합하여 입체감과 원근감으로 공간감이 부여된 3차원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이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Avatar, 2009〉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후 3D 입체영화에 대한 열풍이 불었고, 그 후 3D 영화가 다수 제작 되었으나 〈아바타〉 만큼 성공을 거 둔 작품은 없었다. 그러나 2013년 세계유수영화제로 잘 알려진 칸 개막작으로 바즈 루어만 감독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2013〉가 3D로 상영되었고, 그 해 8월 70주년을 맞은 베니스영화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3D영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Gravity, 2013〉가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이들의 영화에서는 기술력에 의한 눈요기에 벗어나 3D 입체영상만의 더 깊은 공간감과 색채를 조명함으로서 비주얼적 연출의 영역이 확대됨을 보여주었다.

3D영화만의 연출요소들이 차츰 분석되어 지고 견고해지고 있다. 3D 입체영화는 2D의 평면화면에서 구현될 수 없었던 공간각의 영역을 스토리상에 자연스럽게 넘나들고 관객들을 편안하게 경험의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특별 프로그램 II에서는 그 간격에 있는 3D영화의 실험과 특색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3

〈3X3D〉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특별 프로그램 II 타이틀이면서 실제 세계거장 감독들의 옴니버스영화 타이틀이기도 하다. 영화 〈3X3D, 2013〉는 미술관 추천작으로 장 뢰 고다르, 피터 그리너웨이, 에드가 페라 거장감독들이 한 도시를 테마로 만든 작품으로서 3D에 대한 실험성을 담아내고 있다. 한편 전찬일 평론가가 추천하는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의 〈잊혀진 꿈의 동굴Cave Of Forgotten Dreams, 2010〉과 박흥민 감독의〈물고기A Fish, 2011〉에서는 3D의 영화적 기호와 입체적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오동진 평론가의 추천작 〈피나 Pina, 2011〉, 〈스텝업4:레볼루션 Step Up Revolution, 2012〉에서는 3D영화에서만 포착 가능한 인물의 생동감과 사실감을 면밀하게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3D제작지원작 (KAFA+ Next D) 단편 8편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8편의 단편 작품에서는 3D 영화만의 생동감과 다양한 실험을 엿볼 수 있다. 이 단편들을 3D의 원시적 형태 '애너그리프' 의 한 쪽은 붉은색 필터로 다른 한쪽은 푸른색 필터로 보았던 이미지를 차용하여 3가지 컬러테마로 묶었다. 이렇게 3명의 추천작과 3가지 테마로 묶은 프로그램 타이틀은 입체적 영상성과 실험적 요소를 부각해 〈3X3D〉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총 13편의 영화를 감상하면서 3D 영화만의 매력과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은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프로그래머

미술관 추천작

4

3X3D, 2013

포르투갈, 2013, 70min, DCP, Color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 장 뢰 고다르, 에드가페라

출연: 미구엘 몬테이로, 누노 메로, 조지 프렌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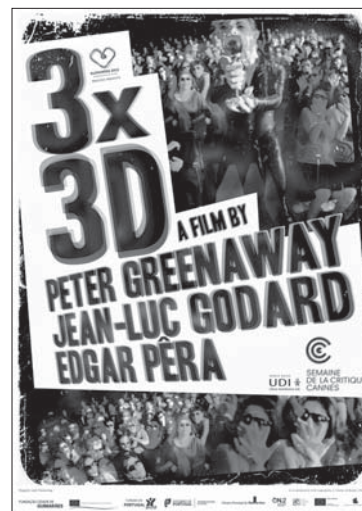
영화 <3X3D>는 피터 그리너웨이, 장 뢰 고다르, 에드가 페라의 세계 거장 감독의 작품으로 올해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상영되었고 국내 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소개된 바 있다. 세 감독의 3D 옴니버스 영화로 거장 감독들이 3D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호기심을 유발한다.

2012년 유럽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포르투갈의 이천년 된 도시 가마랑이스를 테마로 기획되었다. 포르투갈의 역사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작품 <저스트 인 타임>은 피터 그리너웨이 연출작으로 그 만의 현란한 색채와 독특한 형식미를 다중화면,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여준다. 그의 다재다능함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사는 고다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수 많은 스타일을 실험하며 ‘아버지의 영화’에 반기를 든 영화감독 장 뢰 고다르 작품 <세 개의 재앙>은 3D를 세 개의 재앙(3Disaster) 해석하였다. 분절된 이미지와 나레이션을 통해 3D와 영화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마지막 작품 <시네사피엔스>는 영화, 미디어, 갤러리, 무용극을 넘나드는 에드가 페라의 작품이다. 직접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하여 관객과의 대화도 참여했다. 그는 3D라는 기술이 마치 무성영화와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하다고 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영화의 역사속에 보지 못했던 장르와 스타일의 영화가 나오면서 관객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유머와 풍자속에 담아낸 <3X3D>는 관객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색다른 방식으로 탐색하고 있다.



5

감독 — 피터 그리너웨이 Peter Greenaway (1942-)
웨일즈 뉴포트 출생이다. 아버지는 건축사, 어머니는 교사였다. 미술을 공부한 후 중앙정보국에서 편집기사로 일했으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1982), <차레로 익사시키기>(1988),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1989), <야경>(2007), <골트지우스 앤 더 팰리칸 컴퍼니>(2012) 등이 있다.

장 뢰 고다르 Jean-Luc Godard (1930-)
파리 출생으로 프랑스 누벨 바그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소르본 대학에서 인류학을 수학하였고 파리 시네마테크 출신으로 독학으로 영화를 배웠고, 까이에 드 시네마에 평론을 기고하면서 영화인생이 시작되었다. 대표작으로는 <네 멋대로 해라>(1959), <여자는 여자다>(1961), <미치광이 삐에로>(1965), <알파빌>(1965), <마리아에게 경배를>(1983), <사랑의 찬가>(1999), <아워 뮤직>(2004) 등이 있다.

에드가 페라 Edgar Pêra (1960-)
리스본 출생으로 심리학을 공부하였으며 포르투갈 국립예술학교(현재 리스본 연극영화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비디오 아티스트로 활약하며 종종 픽션, 에세이, 코믹물을 집필하기도 한다. 대표작으로는 <자넬라 (마리아르바 믹스)/원도우(마리아르바 믹스)>(2001), <맨 써어터>(2001), <머드 리버>(2007), <바론>(2011) 등이 있다.

전찬일 평론가 추천작

6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2010

다큐멘터리, 프랑스, 2010, 90min, DCP, Color

감독 — 베르너 헤어초크

출연: 베르너 헤어초크 (나레이션)

미국의 타임 지 및 영국의 엠파이어 지 등에 의해 '2013년 최고 영화'로 선정된 1억 달러짜리 3D 영화 <그래비티>(알폰소 쿠아론 감독)는, 스토리 등 다른 그 무엇보다 '체험으로서 영화'가 얼마나 강렬한 감흥을 선사할 수 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다. 영화는 흥행적으로도 큰 성공을 일궈내, 북미 지역에서만 2억5천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서도 3백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잊혀진 꿈의 동굴>은 영화적 외연에서는 비할 바 못되지만, 그 내포에서는 그 거작에 전혀 꿀릴 게 없을, 아니 어느 모로는 압도하는, 또 다른 '체험으로서 영화'의 기념비적 문제작이다. '뉴 저먼 시네마'의 살아 있는 전설 베르너 헤어초크가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인 2010년 감독은 물론, 각본에 내레이션을까지 맡아 완성시킨 기적의 3D 역사 다큐멘터리!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프랑스 남부 아르데슈 협곡에서 3만2천 년 전 인류의 꿈을 간직한 신비로운 동굴이 장-마리 쇼베, 에티엘 브뤼넬, 크리스티앙 일레르 3인 이 다큐는 이들에게 현정됐다 의 사적 탐험에 의해 발견되고, 그 대장의 이름을 따 '쇼베 동굴'로 명명된다. 그 곳에는 동굴사자, 동굴곰, 털코뿔소, 코끼리과 포유동물인 매머드 등 멸종된 희귀동물들을 포함한 13가지 동물들의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300여점의 원시예술 벽화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 동굴은 발견 즉시 선사시대 예술을 증거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정받아 극소수 선택 받은 학자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땅이자 금기의 영역으로 머물러 있었다.



7

수많은 감독들이 시도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단 한 번도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헤어초크 감독은 이에 "단 1유로의 봉급만 받는 프랑스 정부의 직원이 되겠다"는 등의 굳은 의지와 열망으로써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 영화화에 성공했다. 감독 포함 촬영 팀 총 인원 4명에, 하루 4시간 단 6일 간이라는 제약이나, 동굴 내부의 짙은 독성가스, 좁디좁은 금속 통로에서만 가능한 활동 범위, 최소 장비만이 허락된 열악한 조건 등 숏한 한계들을 뚫고…….

<잊혀진 꿈의 동굴>에서 일련의 신비함, 장엄함 외에도 일종의 숭고미가 감지된다면, 다른 아닌 그 한계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한계는 거장에게 각별한 사명감을 안겨줬다. 그는 인류 최초의 입체 예술을 체험하며 '영화의 원형'Proto-Cinema을 떠올렸으며, 그 예술을 탄생시킨 구석기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느낀 크고 깊은 경외심, 환상적 경이감 등을 가능한 정직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담고 싶었다. 3D 영상이나, 단순히 흐르는 효과음 등의 사운드 연출,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동굴 안 꿈의 이미지들과 동굴 밖 전문가 인터뷰 등을 오가며 전개되는 구성 등은 별 다른 고민이 따르지 않았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잊혀진 꿈의 동굴>이 반드시 3D로 맛 봐야만 영화의 '참맛'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야 제 맛이 나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여건상 2D로 맛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맛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것이다. 감독은 3D 효과 못잖게, 3D의 외연적 효과를 넘어 우리 네 인간의 상상력과 그 상상력이 요청하는 스토리 성, 그리고 영화의 으뜸 주제라 할 인류의 영성Spirituality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개인적으로 하이퍼리얼리즘적 다큐멘터리가 되길 욕망했다는 값 비싼 고급 극영화 <그래비티>보다 이 소박한 다큐가 한층 더 감동적으로 다가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위에서 이 소품이 <그래비티>라는 대작보다 내포적으로 어느 모로는 압도한다고 평한 것도 그래서고.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선사하는 가장 인상적 지점 중 하나는 다큐의 한 인물이 인간을 '슬기로운 사람'Homo Sapiens이라기 보다는 '영적인 존재'Homo Spirituality라고 해석 주장하는 대목이다. 타임의 저명 영화 평론가 리처드 콜리스가 이 다큐를 2011년의 베스트 영화 7위로 뽑은 주요 까닭도 영화의 영성 때문 아니던가. <잊혀진 꿈의 동굴>이야말로 감독 헤어초크가 인간 영혼의 동굴 속으로 한 여행들 중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매력적인 것one of his most revealing and appealing journeys into the cave of the human soul이라면서. 이만 하면 이 영화를 놓치기 아깝지 않을까…….

감독 — 베르너 헤어초크 Werner Herzog (1942-)

독일 출생으로 뉴 저먼 시네마 대표 감독이다.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14세부터 도보여행을 시작했다. 그의 영화에 대한 열정은 17세때 첫 번째 영화를 만들려고 시도하게 하였고 18세에 세계여행을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싸인 오브 라이프>(1968), <아귀레 신의 분노>(1972), <하늘은 스스로 돌보는자를 돌보지 않는다>(1974), <피츠카랄도>(1982), <인빈서블>(2001), <세상 끝과의 조우>(2007) 등 50여편을 연출했으며, 12권의 산문집을 출간하고 다작의 오페라 감독이기도 하다.

물고기

A Fish, 2011

한국, 2011, 98min, DCP, Color

감독: 박홍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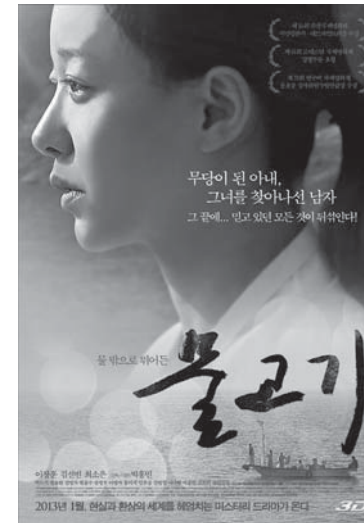
출연: 이장훈, 김선빈, 최소은

아무래도 이 영화와의 개인적 인연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터. 2013년에는 아시아필름마켓 부위원장, 올해에는 마켓 부위원장 겸 연구소장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에 몸담고 있지만,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간은 한국영화 담당 프로그래머로서 다양하면서도 신선한 우리 영화들을 찾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와중에 2011년 제16회 BIFF에 출품됐던 40편 가까운 일부 출품작 스크리너들 묶음 중 실험적 비상업 영화 한 편이 눈길을 잡아끌었다. 감독의 모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투자 받은 5천만 원 등 순제작비 고작 7천만 원을 들여 빚어냈다는 이 저예산 3D 영화 〈물고기〉였다.

‘3D 영화’에 대해서는 그저 큰돈이 들어간다는 정보 정도 외에는 아는 게 거의 없는 내게 영화는 일대 충격이었다.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100분에 달하는 입체 영화를 만들어내고, 2천만 원쯤은 소요되기 마련이라는 3D 자막도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혼자 힘으로 입력했다니,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감독은 그때까지 입체 영화를 만들어보기는커녕 변변한 교육조차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최성원 프로듀서 등 주변의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으나, 감독은 독학으로 3D 테크놀로지를 학습해가면서 이 흥미진진한 3D 장편 데뷔작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BIFF 한국영화의 오늘·비전에 초청한 것은 그러나 〈물고기〉가 저예산 3D 영화여서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어느 날 가출한 아내를 찾아 나서는 남자(이장훈 분)와, 남자의 의뢰로 그녀의 행방을 찾아내 남자에게 알려주는 홍신소 직원(김선빈), 어떤 사연에서인지 무당이 돼 있는 그 아내 세 인물과,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를 하는 정체불명의, 나이 차 나는 두 사내(박노식, 권용환) 사이를 오가며 펼쳐지는 플롯의 미스터리함 등 내러티브 층위나, 때론 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때론 환상적인 분위기 물씬 풍기는 시청각 층위 등 영화는 전 층위에서 주목할 만한 수준을 자랑했다. 영화는 내가 그토록 찾았던 새롭고 다른 그 무엇 Something new & different이었다.

내가 본 스크리너도 3D가 아니라 2D였다.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는 애당초 3D가 아니라 2D로 기획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3D영화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감독은 3D를 통해 발생하는 영화적 기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및 표현하고자 본격 3D영화 제작에 들어갔다”. 〈물고기〉는 따라서 여느 3D 영화들과는 태생은 물론 지향에서도 확연히 다른 노선을 걷은 것이다. 가령 “기존 할리우드 시스템이 영화의 스펙터클과 리얼함을 구현하는 표현방식으로 3D를 사용하였다면, 박홍민 감독은 영화적 메시지에 해석을 더하는 연출적 요소로써 접근해 3D영화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렇듯 “3D를 통해 발생하는 영화적 기호를 작품 속에 다양하게 녹여내며 자신의 세계관을 강조한 색다른 시도”는 일반 관객들은 물론 영화 전문가들에게도 3D 영화에 대한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등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기 충분했다. 영화는 비록 전국 4개 스크린, 총 상영 횟수 56회에 총 관객 500여 명밖에 동원하지 못하는 참담한 스코어에 그치고 말았지만 말이다.



2D로 영화를 보고 매혹 당한 나는, 영화제 스태프에게 감독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어 그의 이력에 대해 직접 묻고 들었다. 나중에 확인한 프로필까지 참고하면, 한림대학교 방송통신학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심화과정 연출 전공 졸업.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연출 전공 재학 현재는 졸업했다. 중이었다. 단편 〈가위바위보〉(2008), 〈88, 세대들〉(2009)로 러시아부기끄영화제 경쟁부문, 뮌헨국제영화제 학생경쟁부문에 각각 초청되었다. 2010년 단편 〈괴롭히는 여자〉를 연출했다. 내친 김에 3D로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감독의 개인 작업실로 찾아가 소형 컴퓨터로 3D 〈물고기〉를 봤다.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입체 효과와, 시칠말로 장난이 아니었던 것.

BIFF 프로그래머 노트에 “2011 BIFF의 발견”이라며 영화를 ‘강추’한 것도 그래서였다. 상기 플롯 라인도 외연적 소개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기 위해선 일말의 두뇌 플레이가 요청된다. 일련의 반전들이 이야기의 복합성을 심화시킨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경계를 확실히 분간하기 힘든 지점들도 허다하다. 극 중 인물들이 현실의 인간인지 환상 속 존재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내러티브 자체가 그만큼 입체적이다.” 이만 하면 이 특별한 기획전에 영화를 다시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

감독 — 박홍민

동아방송예술대학 연극영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연출을 전공하였다. 단편 〈연애하기 좋은 날〉(2006), 〈내안의 나에게〉(2007), 〈문〉(2007), 〈가위바위보〉(2008), 〈88세대들〉(2009), 〈괴롭히는 여자〉(2010) 연출하고, 첫 장편작 〈물고기〉(2011)로 제 31회 벤쿠버영화제(심사위원특별언급)수상하고, 세계유수영화제에 초청받았다.

오동진 평론가 추천작

10

피나

Pina, 2011

다큐멘터리, 독일, 2011, 104min, DCP, Color

감독: 빔 벤더스

출연: 피나 바우쉬, 부퍼탈 무용단원들

한번 거장은 영원한 거장이다. 감독은 일생에서 단 한편의 인정받는 걸작을 만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 편을 만들기도 한다. 다만 그 중 한편만이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할 뿐이라는 얘기가. 대규모 흥행작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걸작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여기 그런 감독의 대표급이 있다. 독일의 빔 벤더스다. 현존하는 시네아스트로 불리는 그는 70 평생 가까운 지금까지 늘 탐구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대륙 횡단무비 <랜드 오브 플렌티>를 만들며 도대체 미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려 했다. 빔 벤더스는 늘 그런 식이다. 세상에 대한 답, 예술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 나서는 태도를 지닌다.

2012년 여름에 개봉했던 빔 벤더스의 <피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건 언제든 반가운 일이다. 탐구주의자 빔 벤더스가 이번에는 영상 테크놀로지의 획기적인 기술인 3D 기법이 어떤 장르의 영화와 결합할 때 가장 휘황찬란한 예술혼을 표출시키는가를 실험하고 입증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빔 벤더스는 3D의 최고 효과관 무용을 다루는 영화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자신의 오랜 지기이기도 한 피나 바우쉬의 일대기를 다큐 형식으로 담아 내고자 했다. 그런데 2009년 피나 바우쉬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피나 바우쉬의 전기 다큐는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한 작품이 됐다. 사람들이 그녀의 삶과 예술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예상대로 이 작품은 피나 바우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역작의 무용 공연과 그 리허설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말 그대로 3D 무용 다큐멘터리답게 남녀 무용수들의 미세한 근육의 떨림, 땀방울까지도 세세하게 포착해 낸다. 다시 한번 피나 바우쉬의 무용 세계를 현란하게 그려낸다. 그런데 이 작품이 만약 거기 정도에서 멈췄다면 거장의 작품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만드는 건 평범한 다큐멘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매뉴얼대로 과거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다큐멘터리 <피나>의 가장 큰 특징은 '묵음'에 있다. 이 다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없다. 물론 소리는 있다. 그런데 내면의 소리다. 다큐멘터리의 상당 부분은 피나 바우쉬가 이끌었던 탄츠테아터 단원들의 개별 인터뷰들로 채워져 있다. 보통의 다큐같으면 그들이 주절주절 떠드는 추억담들을 담아냈을 것이다. 그 긴 얘기들을 깔끔하게 편집하고 정리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결코 입밖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머리 속 생각, 피나 바우쉬에게서 춤을 배울 때의 얘거나 그녀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등등은 모두가 다 독백으로 처리된다.

이런 방식의 인터뷰를 보고 있는 건 일종의 '충격'이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빔 벤더스의 절묘하고 기막힌 예술적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피나가 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인간이 갖는 모든 표현의 적극적인 기제를 뒤로 숨기는 과정을 통해서였다. 인간의 욕망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음으로 해서 더 뜨겁고 솔직한 것이며 그림으로써 한편으로는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 욕망을 해부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에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독백하듯, 스스로의 내면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옳다. 피나 바우쉬가 단원들에게 늘 요구했던 것은 춤의 기교가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가 마음 속의 답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빔 벤더스의 3D 다큐 <피나>는 피나 바우쉬의 예술적

11

질문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작품인 셈이다.

피나 바우쉬의 대표적인 작품 <봄의 제전>과 <카페 뮐러> 등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영화 <피나>는 볼 만한 가치가 넘쳐난다. 특히 <카페 뮐러>의 경우는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그녀에게>의 장면들까지 연상하게 돼 끝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피나 바우쉬가 흔히들 얘기하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넘나 들어 사실은 모든 예술적 행위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됐음을 보여주려 진실로 끈질기게 노력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피나 바우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예술혼은 영원히 남아 있다. 그녀의 작품은 계속된다. 그녀의 예술도 계속된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간직하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피나>의 재 상영은 그 같은 기억의 습작을 반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건 참 행복한 경험일 될 것이다.

감독 — 빔 벤더스 Wim Wenders (1945-)

독일 출생으로 뮌헨 영화학교를 졸업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의학, 철학, 미술 등을 공부했다. 파스빈더와 더불어 전후 독일을 대표하는 감독이자 뉴저먼 시네마 기수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배경아래 황폐화된 인간의 내면을 쏙쏙하게 보여주는 탐험적 정신의 감독으로 평가된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도시의 엘리스>(1973), <파리 텍사스>(1984), <베를린 천사의 시>(1987), <멀고도 가까운>(1993),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1999), <밀리언 달러 호텔>(2000), <돈 검 노킹>(2005) 등이 있다.

스텝업4:레볼루션

Step Up Revolution, 2012

미국, 2012, 98min, DCP, Color

감독: 스콧 스피어

출연: 라이언 구즈먼, 캐스린 맥코믹

춤추고 또 춤추고 그리고 계속 춤춘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춤을 춘다. 춤추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양 몸을 흔들며 댄스. <스텝업4: 레볼루션>은 언뜻 속 빈 강정인 척 군다. 아무런 생각없는, 단순한 아이들의 청춘담인 양 이야기를 설렘설렘 넘어간다. 이젠 무늬야의 영화인가? 아뿔사. 결코 그렇지가 않다. 의외로 이 안에는 단단한 것들이 채워져 있다. 그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울분과 좌절감, 분노, 의도된 가벼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등등이다. <스텝업4>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될 만한 작품이 아니다. 때에 따라 영화는 다소 사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영화는 다 자기만의 가치를 지닌다. 그 당연한 진리를 이 영화가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스텝업4>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못해 너무 뻔해서 요약하기조차 싫증나는 일이다. 마이애미에서 엄청난 규모의 호텔업을 하는 재벌 미스터 앤더슨(피터 갤러허)과 그의 딸 에밀리(캐서린 맥코믹)가 있고 상대방에 가난한 집 청년 선(라이언 구즈먼)이 있는데 이 청춘들이 잘하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춤을 추는 것이다. 두 남녀가 만나게 되는 계기는 당연히 춤이다. 청년은 호텔에서 웨이터로 일하는데 진짜 일은 일군의 자기 편들, 곧 '더 몸' 그룹과 함께 길거리에서 플래쉬 몸(flash mob)을 하는 것이다. 여자는 이 젊은이와 사랑에 빠지는데 문제는 늘 그렇지만 재벌 아빠다. 딸은 청년과 함께 아빠의 호텔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쉬 몸에 참가하게 된다.

영화의 외모는 매우 단순하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영화의 춤 숨겨 한번은 대단하다. 설정 자체가 몸 신(mob scene), 곧 군무(群舞)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출연자들, 안무자들이 손과 발을 맞추고 몸 동작을 하나로 통일시켜 이뤄 내는 댄스 신들 하나하나는 혀를 찰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 영화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뺏기게 만든다. 특히나 3D가 갖고 있는 놀라운 입체감을 군무를 통해 표현해 내는 장면들은 이 영화가 할리우드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경지를 이뤄 내는데 단단하게 한 몫을 해냈다는 점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역시 3D는 춤 영화가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뽐내게 한다.

비주얼 면에서 <스텝업4: 레볼루션>은 영화가 갖고 있는 오락성의 극치를 만끽하게 만든다. '춤꾼'들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근육들, 그 몸의 언어를 다이내믹하게 즐길 수 있게 한다. 영화는 한편으로 치마를 살쩍살쩍 들켰다 뵈다 하는 느낌으로 에로티시즘을 교묘하게 휘감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사람의 몸 그 자체를 보여주는 춤은 유혹적이고 섹시할 수 밖에 없다. 이젠 건강한 선정성이다. 이 영화를 두고 2시간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 극장 밖의 시름을 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락영화라고 하는 건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나름의 진정성을 지닌다. 에밀리는 어느 날 밤 해변 선착장의, 컨테이너가 이곳 저곳에 쌓여 있는 외진 공간에서 선과 단 둘이 데이트를 갖는다. 이제 둘의 몸이 뜨거워질 찰라 지만 머리 속만큼은 둘 다 많이 복잡한 상태다. 여자는 남자에게 말한다. "너는 이해 못해. 부자 집에서 자란다는 걸. 나는 아무 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부러워." 그러자 남자가 대답한다.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플래쉬 몸을 하는 건 그것 때문이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지"라고. 둘의 대화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무기력함을 다소 심드렁한 정서로 대변한다. 부자건 가난하건, 요즘 청춘은 지향할 가치를 상실했다. 세상은 젊은이들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영화 후반부 장면에서 미스터 앤더슨 회장의 지역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설과 그의 '일당들'이 회장의 개발 착공식에 나타나 대규모 반대 시위 몸을 하는 장면은 이 영화가, 아니 요즘의 할리우드 영화 모두가 2011년 9월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 사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 가를 보여준다. 할리우드는 젊은이들의 소비를 먹고 산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대다수는 월가를 점령하려는 일군의 시위에 극적인 동조감을 보였다. 할리우드의 수익구조는 이런 정서의 젊은이들이 얼마 만큼 주머니를 여느냐에 달렸다. 할리우드가 그들이 동의하는 이즘(ism)의 영화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기묘한 이념적 상업주의인데 <스텝업4> 역시 그 트렌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그게 상업적 의도였든 순수한 정치적 의도였든 기이하게도 바로 그 점이야말로 이 영화가 획 지나쳐 잊혀질 만한 단순무지의 영화로 분류되지 않게 하는 균형자 역할을 해낸다. 영화는 그래서 나름, 찜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젊은이들이 마음 속 고통을 안고 살고 있다면 그건 병든 시대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청춘들의 속앓이를 지나치게 모른 척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텝업4: 레볼루션>의 춤 장면 장면을 경탄을 터뜨려 가며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의 추를 놓칠 수 없게 되는 건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재미있으며, 요즘 시대에 대해 되돌아 보게 만드는 영화다. 비교적 간편하고 부담없는 마음으로. 춤추며 생각하라! <스텝업4>가 주는 기이한 격언이다.

감독 — 스콧 스피어 Scott Speer (1982-)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 뮤직비디오 감독과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23세에 Switchfoot "Stars"로 올해 감독 신인상을 받았으며 <스텝업4>에서는 춤뿐만아닌 아트 뮤직을 선보이며 춤과 영화와의 만남을 넘어 공감각적인 만남까지 시도하였다. 2012년, 2013년 두편의 소설도 출간하였다.



KAFA + Next D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KAFA)는 지난 30년 간 봉준호, 최동훈, 허진호, 이재용 등 수많은 간판 영화인들을 배출해 온 국내 최고의 영화학교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KAFA+ Next D 프로그램은 이런 KAFA의 역량을 바탕으로 영화계 최신 트렌드인 3D영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수의 3D단편영화를 한국 영화계에 선보이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이다.

특히 2013년에는 <부당거래>, <베를린>의 류승완 감독, <가족의 탄생>, <만추>의 김태웅 감독, <고스트 맘마>, <파파>의 한지승 감독이 합류하여 3D 유니버스 영화를 제작 중이며 2014년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제작된 총 14편의 영화 중 8작품을 엄선하였으며 한국 3D영화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Gray

두 유 리멤버 미

Do you remember me, 2012

한국, 2012, 26min, DCP, Color

감독: 손원평

출연: 구은애, 오정세

시놉시스

한 여자에게 모르는 남자로부터 메일이 온다.

과거에 사랑했던 사이라며 여자와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는 그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익숙하지만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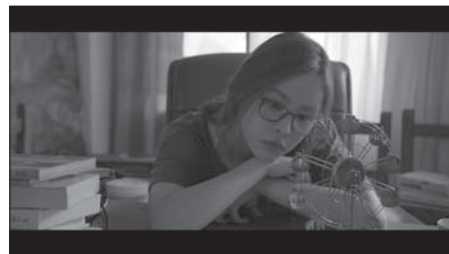
감독 — 손원평

서강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장편 <미소>, <다세포소녀>에서 스크립터로 활동하였으며

연출작으로는 단편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2005), <너의 의미>(2007), <좋은 이웃>

(2010) 이 있다.



은막의 연인

Solid bur Fluid, 2013

한국, 2013, 23min, DCP, Color

감독: 손태웅

출연: 김정화, 박주형

시놉시스

나와 그녀만의 세상 사이 어딘가에, 진짜 그녀가

있다. 결혼을 사할 앞두고 있는 진영과 세준 커플이 지친 상태로 자동차극장을 찾는다. 아티스트인

진영은 다친 손을 보며 결혼과 더불어 다시는 작업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여 있고, 세준은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고, 세준이 깜빡 잠이 든 사이,

감정이 연약해진 진영은 영화 속의 낭만적인 화면에

한없이 빠져든다. 잠에서 깬 세준은 사라진 진영을

찾아 주변을 헤매다 스크린 속에 들어가 있는 진영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절망적이 된 세준은

버려진 진영의 작품 하나를 정성껏 완성해 가며

진영의 마음을 느껴보려 한다.

감독 — 손태웅

1994년 연세대학교 전산과학을 졸업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봉준호 감독의

단편 <지리멸렬>(1995)을 촬영하고 <바람과 나무의

길>(1995)을 연출하였다. 임권택 연출부로 활동하고

단편 <필통낙하시험>(1996)으로 스위스 프리부르

영화제와 싱가포르영화제에 초청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 각본을 쓰고 장편 <해부학교실>

연출하였다.



Blue

강호열전

江湖熱戰, 2012

한국, 2012, 16min30sec, DCP, Color

감독: 구혁탄

출연: 강창목, 민지민, 양길영, 김길동

시놉시스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강호의 두 고수가 만났다

강호는 오랜 기간 정파와 사파로 나뉘어 세대를 뛰어넘는 오랜 기간 동안 피의 전쟁을 치러왔다.

그런 정파와 사파의 후계자인 무림의 최고수 비광과

원찬이 한 객잔에서 부딪히게 된다. 비광은 수리학에

근거를 둔 자신의 무공을 확신하며, 지난날 강호의

표범이라 불리던 상필과의 혈투에서의 승리를

추억한다. 원찬은 초식 하나하나를 쇠구에 비유하는

고매한 검객으로, 화린·화선 자매와의 대결을

희상한다.

마침내 피맺힌 원한에 두 문파 계승자간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승부. 강호의 최고수인 두 사람의 칼

끝에 스치는 바람마저 숨죽이고 있을 긴장의 순간,

이름 모를 한 사내가 두 사람을 막아 선다.

감독 — 구혁탄

199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입학하고

2000년 동대학원 전문사 촬영 전공에입학하였다.

<사이크 드라마>(1999), <아광 원숭이>(2003),

<생리해서 좋은 날>(2004), <샌프란시스코

블루스>(2005) 등을 촬영하였다.



교실실격

Disqualified, 2013

한국, 2013, 9min, DCP, Color

감독: 경지숙

출연: 김충근, 김지영, 김요한

시놉시스

어느 교실이나 급훈이 있기 마련이다. 물리교사인 철규는 아이들에게 물리공식을 질문하는데, 답하지 못하면 바로 총을 쏜다. 마지막 남은 7번 학생 그는 모든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데 이제는 7번 학생이 철규에게 질문한다. 그러나, 철규 대답을 못하는데 그 순간을 놓칠세라 뒤 춤에서 권총을 꺼내는 7번 학생. 철규를 향해 총구를 들이댄다. 7번 학생이 철규에게 질문한 건 무엇일까? 철규는 과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때 교실 뒷문을 열고 등장하는 누군가.....

감독 — 경지숙

2002년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1+1=2〉(2005), 〈1년, 또 1년〉(2010), 〈너의 결혼식, 나의 결혼식〉(2011)을 연출하였다.



16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2013

한국, 2013, 15min10sec, DCP, Color

감독: 권봉근

출연: 정제우, 신병철, 박희배, 이효영

시놉시스

33세 그레코로만 레슬링 선수 용재에게 오늘은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 날이다. 상대는 같은 학교 출신의 후배 윤대성. 떠오르는 신인으로 주목받는 대성이와의 경기는 역시나 노장 용재에게는 버거운 경기가 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도전해보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놓쳐서는 안되는 이유가 용재에게는 있다. 병으로 누워계신 홀아버지와 실제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생 건재의 노력과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한때 같이 운동을 했던 석구의 유혹도 떨쳐내고,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위해 힘을 내는 강용재. 과연 용재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감독 — 권봉근

서울대 노어노문과를 입학하고 2003년~2004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다녀와 〈어느 남북자의 탈옥일기〉를 연출한다. 2006년~2007년 극단 조연출로 활동하였고 2009년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연출과정을 수료하고 2013년 Columbia University 영화학과 대학원 졸업한다. 〈뉴클리어 패밀리〉(2012), 〈대신 물어드립니다〉(2013) 등을 연출하였다.



Red

락커

Locker, 2013

한국, 2013, 14min, DCP, Color

감독: 심소연

출연: 박지아, 연우, 박민솔

시놉시스

내 안에 가두었던 그것이 깨어난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여배우 성지아. 어느 날, 화이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던 지아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농밀한 시선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계속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와 자신을 욕하는 듯한 사람들의 목소리. 망상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아를 옥죄며, 서서히 그녀의 세계에 분열이 일어난다

감독 — 심소연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Florida State University Film School를 졸업하였다. 연출작으로는 〈My Four Inch Precious〉(2008), 〈Dreamer's Serenade〉(2007), 〈Fade Away〉(2006), 〈Disconnected〉(2006), 〈A Fact of Life〉(2005) 등이 있다.



17

불

FIRE, 2012

한국, 2013, 17min, DCP, Color

감독: 홍성훈

출연: 박준혁, 조혜훈, 황두하, 안창환

시놉시스

불빛이라고는 사라진 캄캄한 세상, 힘겹게 불을 구한 남자가 자신의 무리로 복귀하고 있다 불빛이라고는 사라진 캄캄한 세상, 힘겹게 불을 구한 남자가 자신의 무리로 복귀하고 있다. 남자를 마중 나온 동료들 만나고, 늑대남들에게 습격을 당해 불을 뿜길 위기에 처한다. 남자는 늑대남에게 상처를 입고 간신히 불을 지킨다. 남자가 불을 전달해 주고, 무리는 불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한다. 늑대남들이 불빛을 보고 무리를 찾아와, 다시 불을 빼앗으려 한다. 두 무리가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한다. 그 때 어디선가 거대한 불빛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사람들은 그 불빛을 쳐다보게 되는데.....

감독 — 홍성훈

한국영화아카데미 22기를 졸업하고 단편〈흙에서 흙으로〉(2002), 〈쏟아〉(2003), 〈귓속말〉(2005), 〈만남〉(2005), 〈아들의 여자〉(2008)를 연출하였다. 〈만남〉은 칸느영화제시네마파운데이션에 초청되었다.



카오스

CHAOS, 2012

한국, 2012, 173min11Sec, DCP, Color

감독: 한지승

출연: 황건, 정경

시놉시스

때는 1920년, 어느 낡은 창고 안.

흡혈귀인 남자를 인간 여자가 사랑하게 됐고 그들의 사랑 행각이 발각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아오게 된 상황.

여자는 부상당한 흡혈귀를 조르며 자기도 흡혈귀로 만들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고 애원하는데..영원? 사랑?..

감독 — 한지승

1967년생으로 한양대학교 영화연출을

전공하고 1995년 <고스트 맘마>로 데뷔하였다.

<찜>(1998), <하루>(2001)를 연출하였다. 드라마 <연애시대>(2006)와 연극 <신의 아그네스>(2008)를 연출하며 활동하고 있다.



Section	Director	Title	Duration	Year	Subtitle
미술관 프로그래머 Theatre Programmer for MMCA Seoul's Choice	피터 그리너웨이 Peter Greenaway 장 뤽 고다르 Jean-Luc Godard 에드가 페라 Edgar Péra	3X3D	70'	2013	ENG / KOR
전찬일 평론가 Jeon Chan-il's Choice	베르너 헤어초크 Werner Herzog 박홍민 Park Hong-min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물고기 A Fish	90' 98'	2013 2013	ENG / KOR KOR
오동진 평론가 Oh Dong-jin's Choice	빔 벤더스 Wim Wenders 스콧 스피어 Scott Speer	피나 Pina 스텝업4:레볼루션 Step Up Revolution	104' 98'	2011 2012	GER / KOR ENG / KOR
3D 단편 KAFA+Next D	Gray 손원평 Sohn won-pyung 손태웅 Derek Son	Do you remember me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26' 23'	2012 2013	KOR / ENG
Blue	구혁탄 Koo Hyuk-tan 경지숙 Kyung Ji-suk 권봉근 Kwon Bong-keun	강호열전 Hero 교실실격 Disqualified 로망,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16'30" 9' 15'10"	2012 2013 2013	KOR / ENG
Red	심소연 Sim So-yun 홍성훈 Hong Sung-hoon 한지승 Han Ji-seung	락커 Locker 불 Fire 카오스 CHAOS	14' 17' 13'11"	2013 2012 2012	KOR / ENG



HONG SUNGHOON
DIRECTOR
Born in 1967, Han Ji-seung majored Film Direct-
ing at Hanyang University. <Ghost Mama> was
his debut film as a director and then he continued
to produce more films including <The A Yellow
Ribbon, 1998>, and <A Day, 2001>. He has ex-
panded his scope of production in recent years
by making TV drama, <Alone in Love, 2006> and
play <Agnes of God, 2008>.

Synopsis
In a world where light no longer exists, a man
has attained a handful of fire and he is now on
his way back to his cluster of habitation.
In a world where light no longer exists, a man
managed to attain a handful of fire and tried to
find his way back to his home cluster. Although
he meets his friends who came out to escort him,
he is soon assaulted by wolf-men who try to steal
away the fire. He luckily manages to keep the fire
though wounded. Man then delivers the moment of having
the fire through dance of fire. Nonetheless, the
wolf-men come to assault them at their habitat to
seek for the fire. While the two groups have a big
fight, a ray of magnificent light is illuminated and
lights up the world. People then start to wonder
where the light comes from

Rep. of Korea , 2013, 17min, DCP, Color
Director: Hong Sunghoon
Cast: Park Jun-hyeok, Cho Hye-hoon, Hwang
Do-ha, and Ahn Chang-hwan

Graduated KAFA in 2005, Hong Sunghoon
produced several short films including <From
a handful of soil to soil, 2002>, <Bitter Taste,
2003>, <A Whisper, 2005>, <A Reunion,
2005>, and <Girl, 2008>. Particularly, <Meet-
ing> was invited to Cinema Foundation at
Cannes Film Festival.

Synopsis
The film starts with going back to 1920s at an
old warehouse. A human woman falls in love
with a vampire man, and their love affairs are
known to all town village people who urge to kill
both of them. The couple, pushed off to the old
warehouse, must make their last decision before
it gets too late. The human woman asks the vam-
pire man to make herself become a vampire so
that the two can live and love forever together..
Eternity? Love?..

HAN JI-SEUNG
DIRECTOR

Born in 1967, Han Ji-seung majored Film Direct-
ing at Hanyang University. <Ghost Mama> was
his debut film as a director and then he continued
to produce more films including <The A Yellow
Ribbon, 1998>, and <A Day, 2001>. He has ex-
panded his scope of production in recent years
by making TV drama, <Alone in Love, 2006> and
play <Agnes of God, 2008>.



Graduated KAFA in 2005, Hong Sunghoon
produced several short films including <From
a handful of soil to soil, 2002>, <Bitter Taste,
2003>, <A Whisper, 2005>, <A Reunion,
2005>, and <Girl, 2008>. Particularly, <Meet-
ing> was invited to Cinema Foundation at
Cannes Film Festival.

Synopsis
The film starts with going back to 1920s at an
old warehouse. A human woman falls in love
with a vampire man, and their love affairs are
known to all town village people who urge to kill
both of them. The couple, pushed off to the old
warehouse, must make their last decision before
it gets too late. The human woman asks the vam-
pire man to make herself become a vampire so
that the two can live and love forever together..
Eternity? Love?..

Rep. of Korea , 2012, 173min11Sec, DCP, Color
Director: Han Ji-seung
Cast: Hwang Geon, and Chung Kyeeong

Wed	Thu	Fri	Sat	Sun
1.22 Do you remember me 3X3D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1.23 강호열전 Hero 물고기 A Fish 교실실격 Disqualified 피나 Pina	1.24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락커 Locker Gray	1.25 불 Fire 피나 Pina 카오스 CHAOS 물고기 A Fish	1.26 Do you remember me Red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Blue
1.29 강호열전 Hero 피나 Pina 교실실격 Disqualified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1.30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락커 Locker Gray	1.31 불 Fire Blue 카오스 CHAOS 물고기 A Fish	2.1 Do you remember me Red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3X3D	2.2 강호열전 Hero 물고기 A Fish 교실실격 Disqualified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2.5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Red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물고기 A Fish	2.6 락커 Locker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강호열전 Hero Red	2.7 불 Fire Gray 교실실격 Disqualified 3X3D	2.8 카오스 CHAOS Blue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2.9 Do you remember me 3X3D 락커 Locker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2.12 불 Fire 피나 Pina 카오스 CHAOS Gray	2.13 Do you remember me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3X3D	2.14 강호열전 Hero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교실실격 Disqualified Red	2.15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Gray 락커 Locker Blue	2.16 불 Fire 물고기 A Fish 카오스 CHAOS 피나 Pina
2.19 Do you remember me Blue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Red	2.20 강호열전 Hero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교실실격 Disqualified 피나 Pina	2.21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Gray 락커 Locker 물고기 A Fish	2.22 불 Fire 3X3D 카오스 CHAOS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2.23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Red Do you remember me Blue
2.26 강호열전 Hero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교실실격 Disqualified 3X3D	2.27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락커 Locker 물고기 A Fish	2.28 불 Fire Gray 카오스 CHAOS Blue	3.1 Do you remember me 피나 Pina 은막의 연인 Red	3.2 강호열전 Hero Red 교실실격 Disqualified Gray
3.5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물고기 A Fish	3.6 락커 Locker Gray 강호열전 Hero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3.7 불 Fire 물고기 A Fish 교실실격 Disqualified 피나 Pina	3.8 카오스 CHAOS 3X3D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스텝업 4 Step Up Revolution	3.9 Do you remember me Red 락커 Locker 피나 Pina
3.12 불 Fire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강호열전 Hero 피나 Pina	3.13 카오스 CHAOS 3X3D 교실실 Disqualified 스텝업 4	3.14 Do you remember me Blue 불 Fire 물고기 A Fish	3.15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Blue 카오스 CHAOS 3X3D	3.16 로망 그레코로망 My dream, greco-roman Gray 은막의 연인 Solid but Fluid 잊혀진 꿈의 동굴 Cave Of Forgotten Dreams

HERO, 2012

Rep. of Korea , 2012, 16min30sec, DCP, Color
Director: Ku Hyeok-tan
Cast: Kang Chang-mook, Min Ji-min, Yang Gil-yeong, and Kim Kil-dong

Synopsis

Two irreconcilable hero encountered! The world of hero have long been divided into main and private faction, the battles between them were brutal and bloody. Successors of each faction, Bi-guang and Won-chan, meet at lodging to finish the long battle. Confident with his deed of arms based on hydraulics, Bi-guang recalls his memory of his win against Sang-pil who used to be referred to as the leopard of the world. Won-chan who has very noble spirit, describing every swing with a poetic phrase, recalls his memory of battle against Sister Hwarin-Hwaseon. This is the battle that will mark an end to the bloody battle story between two factions. When the two supreme masters of the world are just about to begin their first battle with great state of tension, all of sudden, an unknown man comes in to stop the battle.

DIRECTOR — KU HYEOK-TAN

Ku Hyeok-tan entered Film Studies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ARTS) in 1996 and continued to study Cinematography at the KARTS for his Master's Degree. His major productions include <Psychodramas, 1999>, <A Luminous Monkey, 2003>, <Flowering Day, 2004>, and < San Francisco Blues, 2005>.



DISQUALIFIED, 2013

Rep. of Korea , 2013, 9min, DCP, Color
Director: Kyeong Ji-sook
Cast: Kim Chung-guen, Kim Ji-yeong, and Kim Yo-han

Synopsis

Every class in school has its own class motto. Cheol-gyu, a school physics teacher, asks his students with physics-associated equations but shoots immediately if a student cannot answer. The last student remaining was No.7 student, who keeps on giving correct answers to Cheol-gyu's questions. Then, the No.7 asks back to him but he couldn't find the right answer. Spotting Cheol-gyu was hesitating, the No.7 immediately finds his own gun and points it towards him. What did the No.7 ask to Cheol-gyu? Could he finally give the answer to it? There unexpected person comes in to the class through its back-door.....

DIRECTOR — KYEONG JI-SOOK

Kyeong Ji-sook earned her degree in Mass Communication at Kyung Hee University in 2002, and graduated KAFa in 2005. Her major works include: <1+1=2, 2005>, <One Year And One Year Again, 2010>, and <Chupachups, 2011>



MY DREAM, GRECO-ROMAN, 2013

Rep. of Korea , 2013, 15min10sec, DCP, Color
Director: Kwon Bongkeun
Cast: Jeong Je-woo, Sin Byeong-cheol, Park Hee-bae, and Lee Hyo-yeong

Synopsis

It is the day of choosing national wrestling player, the day that 33-year-old greco-roman wrestling player, Yong-jae, has been waiting for. His final rival is Yoon Dae-seong, his junior of the same school. Yoon is known as the new star of the greco-roman wrestling, implying it'd be a tough game for the old player. However, Yong-jae has a good reason why he cannot easily give up on his last challenge to be selected as the national player in his life. He can't simply turn back on his father who is sick on bed, and his younger brother who has practically taken care of his family's living with his much own sacrifice. Yong-jae is determined to take advantage of this chance to achieve his dream to come true. Is he really going to make his life and dream to outturn at last?

DIRECTOR — KWON BONGKEUN

Kwon Bongkeun gained his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degre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won went on an exchange student program between 2003 and 2004 to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and soon after he produced <Prison-break diary of Abductee>. He also worked as assistant producer for a theater company between 2006 and 2007. Afterwards, Kwon completed Directing course at Chung-Ang University's High-Tech Video Institute in 2009, and graduated MFA in Film at School of the Arts, Columbia University in 2013. His productions include: <Nuclear Family, 2012>, and <Let Me Cry For You, 2013>



DIRECTOR — SOU YUN, SIM
Sou Yun, Sim took her degree in Western Painting at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n graduated from Florida State University Film School. Her productions include: <My Four Inch Precious, 2008>, <Dreamer's Serenade, 2007>, <Fade Away, 2006>, <Dis-connected, 2006>, and <A Fact of Life, 2005>

Synopsis

What was locked inside myself has awoken. Seong Ji-a used to be a famous actress but not any longer. One day, she was working out at Gym but suddenly realized people were glaring at her, of which she got scared. She then feels like surrounded by strange voices which sound like swearing to her. Faced with a set of strange situations, she cannot distinguish herself in between delusion and reality, causing schizophrenia in her world.

LOCKER, 2013

Rep. of Korea , 2013, 14min, DCP, Color
Director: Sou Yun, Sim
Cast: Park Ji-a, Yeon Woo, Park Min-sol, Zia, Yeon Woo, and Min Sol Park

Rep. of Korea , 2013, 23min, DCP, Color

Director: Son Tae-woong

Cast: Kim Jung-hwa, and Park Joo-hyeong

Synopsis

Somewhere between my world and her world, there is her in deed.

Jin-yeong and Se-jun are planning to get married in four days' time. The couple visit drive-in-

theatre and have some conversation meanwhile at their car. Jin-yeong, an artist, is worried that

her wounded hands might no longer allow her to continue making art works after getting married,

in which Se-jun cannot understand her unstable emotion. Then, a film starts and while Se-jun gets

asleep, sentimental Jin-yeong falls into the actual scenes on the screen. Se-jun wakes up and

tries to find Jin-yeong. He then realizes she has actually gone into the film. Shocked and frightened, Se-jun instead tries his best to complete

some unfinished pieces of her work to share and understand how she may have felt while working.

DIRECTOR — SON TAE-WOONG

Son Tae-woong majored Computer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and entered KAFA where he

had an opportunity to help Director Bong Jun-ho to film <Incoherence, 1995> and produced his

own film, <Road for Wind and Tree, 1995>. He also worked at producing team for Im Kwon-taek.

His short film, <Pencase Freefall Test, 1996> was invited to Fribour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Singap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also wrote scenario for Bong Jun-ho's <Barking

Dogs Never Bite, 2000>, and produced <Cavedaver, 2007> himself.

Rep. of Korea, 2012, 26min, DCP, Color

Director: Son Won-pyeong

Cast: Ku Eun-ae, and Oh Jung-sae

Synopsis

A woman receives e-mail from an unknown man. The man explains she was in love with him and

starts talking about his memories with her. The woman feels familiar to what he says, but she

cannot remember who he is at all.

DIRECTOR — SON WON-PYEONG

Son Won-pyeong learned Sociology from

Sogang university, and also graduated from KAFA in 2004. She worked as a scripter for full-

length films including <A Smile, 2003>, and <Dasepo Naughty Girl, 2006>. Her short-film

productions include: <Ooh, You Make Me Sick, 2005>, <A Two-way Monologue, 2007>, and <Your Kind Neighbour, 2011>.



KAFA + NEXT D

a balance,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is film should not be just regarded as an ordinary high-teen film. The film gives some good clues that touch our sense of emotion.

If young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bear so

much pain in their life, then it must be society's fault. Perhaps, the society is intentionally letting

young people suffer from their agony. Of course, I was genuinely impressed with some dancing

scenes in the <Step Up Revolution>, but at the same time it was not easy to watch and regard

the film as genuine entertainment, for it indicates some malfunctioning side of our society and

hence allows me to look back to the society where I am living on. Still, the film itself is surely

ever more dynamic and exciting than anyone might have imagined for a dancing film. "Dance

freely and think simply!" This is one interesting lesson I learned from the < Step Up Revolution >

DIRECTOR

SCOTT SPEER (1982-)

Born in California US, Scott Speer is an American film director, music video director and novel-

ist. In 2006 Speer received the MVPA Award for Directorial Debut of the Year for the music video

of "Stars" by Switchfoot. In Step Up Revolution, Speer displayed not just dances but art music,

showing possibility for the encounter of synaesthesia, instead of just combining dance

and film. He also released two novels in 2012

Korean Academy of Film Arts (KAFA), run by Korea Film Council, is the most prestigious film academy in Korea with its alumni including well-known directors like Bong Jun-ho, Choi Dong-hoon, Heo Jin-ho, and Lee Jae-yong over the last 30 years. KAFA+ Next D Program was initiated since 2012 in an attempt to foster talented directors with more up-to-dated 3D techniques. It is also the only qualified 3D film training program for potential directors, which have helped them produce a number of 3D short films based on the academy's rich experience in the film industry.

Particularly, since 2013 Ryoo Seung-wan (director of Berlin and The Unjust), Kim Tae-yong (director of Family Ties and Late Autumn), and Han Ji-seung (director of Ghost Mama, and Papa) took part in the program together to create a 3D omnibus film, which is expected to be on screen in 2014 , already drawing much public attention. In this special program, 8 out of 14 films were carefully chosen, and I expect they will be a good guide in projecting the future of Korean 3D film industry.

see Wim Wenders's <Pina> is probably the best answer to the artistic question from Pina Bausch.

It is pretty worthwhile to see the film as the

documentary features her famous <Le Sacre du printemps> and <Cafe Müller> in the film.

Particularly, the <Cafe Müller> reminds of some scenes from Pedro Almodóvar Pedro

Almodóvar's <Talk to Her> (Spanish: Hable con ella), which touched my heart. The fact that Pina Bausch frequently crossed over boundary between the fine art and popular art shows her

action was clearly derived from one source – the truth –, and she devoted her life to show the

her spirit of art still remains and so does her performance. It's just how we remember it and keep it. Re-screening of the <Pina>, therefore, will encourage us to practice recalling the memory; that is, a practice of fine experience.

DIRECTOR

WIM WENDERS (1945-)

Born in Germany, Wenders entered University of Television and Film Munich. He studied medi-

cine, philosophy, and art in his youth period. Along with Rainer Werner Fassbinder, he took

advantage of the New German Cinema and he is regarded as one the most representative German directors of the Post World War with his natural experimental spirit to forsakenly demonstrate the

tory period between modern and contemporary human mental deterioration during the transi- directors of the Post World War with his natural experimental spirit to forsakenly demonstrate the experimental spirit to forsakenly demonstrate the

The Million Dollar Hotel (2000), and Don't Come Knocking (2005)

STEP UP REVOLUTION, 2012

US, 2012, 98min, DCP, Color

Director: Scott Speer

Cast: Ryan Guzman, and Kathryn McCormick

Dance dance and dance again! Youngsters in the film are dancing almost all the time as if that's what they are born for. <Step Up Revolution>

might look like all sizzle and no steak as it simply shows typical youngsters' youth story. Is this film really pointless after all? Actually, no! That is not

the case at all. If you see with closer look, then the film is actually a lot more solid than it looks on

the surface; for example, angers and anxieties of the youngsters as well as their intended frivolity and desire for something new. That's why <Step Up Revolution> cannot be treated as simple as

you might imagine. Of course, depending on some scenes the film could look rather trivial. But, each film has its own value and this natural

principle is well proved again by this film.

The overall story of <Step Up Revolution> is too simple that it is probably not so necessary to describe its synopsis: Set in Miami, Sean (Ryan Guzman) and his friends lead a flash mob which calls themselves The Mob and they have flash mobs all over the city so that they could win an online contest. They also work at a luxury hotel where Sean meets a girl named Emily (Kathryn McCormick) who is the daughter of the owner of the hotel. She aspires to be a dancer which her father (Mr. Anderson, who starred Peter Gallagher) doesn't support and they hit it off. Eventually Emily joins The Mob and she learns that her father plans to tear down the neighbor-

hood where they live. She gets them to use The Mob to launch a protest.



As you can see, the general outlook of the film could be seen quite simple and typical, but it is important to note on their brilliant dancing per-

formance throughout the film. It includes many mob scenes where a group of dancers dance together and it is such a thrilling experience to see they dance with inch-correct performance altogether. Particularly, those scenes that use 3D effects to implement the group dance well illustrate to what extent this film affected the Hol-

lywood in extending the horizon of the use of the technology. It just proves again that dancing is the best form of film types to take advantage of

the 3D effects.

In visual aspect, the <Step Up Revolution> provides all possible entertainments that a film

can provide: fine beautiful muscles of the dancers and the dynamic movements of the dancers.

This film cleverly rounds the eroticism in a pretty hairy way. It shows people's dancing body, that

is, unavoidably attractive and sexy to watch them. But in fact this is rather fine sexuality and hence

I would describe it as an entertainment film that can release all your stress by simply enjoying the film during 2 hours of its running time.

Nonetheless, the film attempts to cover some serious issue, too. One night, Emily goes on date with Sean near the dock where there are some containners. Meanwhile, each Sean and Emily has complex situations to explain to each other in this rather romantic situation. Emily says, "You cannot understand how it is like to be grown up in a rich family. I cannot do anything as I want. But you guys can do it, and I envy you for that." Then, Sean says, "You are misunderstood. People like us mean almost nothing. No one cares about us. And that's why we carry out the flash mobs. It's because we want to speak out to the people that we are here."

The film represents young people's lethargy in these days through their conversation in a blase way. Whether rich or not, young people of these days have lost their orientation and goals. The society no longer pays attention to them and does not acknowledge their roles in the society either. In the latter half of the film, Sean and his

group come out and stand against Mr. Anderson's local development plan by playing out a

large scale flash mob. This, in turn, shows the ex-

tent to which the Hollywood films are affected by the Occupy Wall Street movement in September 2011. Basically, Hollywood lives on by consum-

ing the trend of young people. Hence, when the movement was ignited, it became apparent that

the Occupy Wall Street gained much sympathy of the young people. It also naturally had let the

business-minded Hollywood start to seek for a way to produce films that can share the ism of

the young people of the time. This is based on rather weird ideological commercialism, but the

<Step Up Revolution> is not free from such trend

either. Whether created with commercial or political intention, the film plays a role in making

FILM CRITIC OH DONG- JIN'S CHOICE

This is the reason why I strongly recommended <A Fish> in BIFF Programmer's note, referring it as "Discovery of the BIFF 2011". The explained above plot only outlines the surface of its story. In order to fully follow the story line of the film, audiences are required to watch with a high level of intensive concentration due to its series of twists, adding complexity to the story. Also, there are quite a few indiscernible moments whether in reality or fantasy. Sometimes, it is not even easy to figure out whether the characters in the film are real or fantasy either, illustrating how stereoscopic the narrative is. This splendid film surely deserves to get recommended in the Special Opening Programs for the MMCA Seoul.

DIRECTOR PARK HONG-MIN

Director Park Hong-min studied Drama and Cinema at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and major Directing at Communication Art College, Dongguk University. A Fish, his first feature-length film received Dragons and Tigers Award for Special Mention in the 31st 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INA, 2011

Documentary, Germany, 2011, 104min, DCP, Color
Director: Wim Wenders
Cast: Pina Bausch, Dancers of the Tanztheater Wuppertal

Once a master, always a master. Directors are normally recognized by one masterpiece that represents themselves throughout their life, but it doesn't mean that they only make one single masterpiece film; they make few but it's just that only one of them are made hit and become widespread. Like so, making films with relatively smaller scale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he or she cannot make the masterpiece film any longer. Wim Wenders is the director who fits the most to such case described. Frequently referred as a living cine artist, Wim Wenders has constantly produced exploring films throughout his 70 years of life. For example, when 9/11 happened in 2001, he produced film <Land of Plenty> across the US to describe what happened in US and what was still happening. This is Wim Wenders's style: he always seeks for the answer to the world and answer to the art by himself.

In fact, I believe it is good to encounter <Pina> again, originally released in 2012 summer, since Wim Wenders this time applied the 3D effects – considered as a ground-breaking method for video technology. He used it in order to experiment and demonstrate himself for when the 3D effects can be used to inspire the spirit of the art most. Wim Wenders anticipated that the 3D effects would be best utilized when applied with dancing films. Therefore, it was natural for him to intend to produce a documentary for Pina Bausch's life story. Unfortunately, however, she passed away her death made the film even more desirable as people were still missing about her life and art. As you can expect, the <Pina> is built up based

upon Pina Bausch's performances and related rehearsals. The film observes and catches the minute vibration of performers' muscles as well as every drop of their sweat. Put it simply, it excellently reproduced Pina Bausch's devoted life for dance. However, if that was all, it would have been probably difficult to regard the <Pina> as Wim Wenders's one of the masterpieces as like now, since otherwise it would simply follow the standard manual guide for common documentaries to show traces of one's past history.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Pina> is in its 'grouping' of components. This documentary is running basically as silent. Of course, there are some sounds made; but they are sounds from the internal mind. A large portion of the documentary focuses on interviews with Tanztheater Wuppertal's dancers whom she led. In this case, ordinary documentaries would merely film those past memories with her during the interview, and edit and re-arrange the stories in a nice and neat order. However, the Tanztheater Wuppertal's dancers never speak out in front of the camera. Their thoughts, stories with Pina Bausch in learning dancing, or personal episodes with her are all filled with monologues.

It is almost thrilling to see such kind of interviews as I believe this is what makes Wim Wenders regarded as the 'master' with his brilliant choice for art. The way how <Pina> was eventually trying to appeal to the audience was through hiding all active mechanisms of the human expressions. In general, human desires are not obviously exposed but hidden, and this is what makes it more realistic, but simultaneously this is what makes it more difficult to interpret. Hence, in order to get closer to understanding the desire, it is necessary to get deeper into oneself, such as in the form of speaking in monologue. What Pina Bausch wanted from her dancers was not the specific skills of dance; it was to find what they are thoroughly eager for. In this aspect, I

3D effects, but also on the audiences' imagination and how it leads to creating new story. It is crucial to note that he considered the importance of the human 'Spirituality' as the core idea of the film. 'This is why I personally see this humble documentary more valuable compared to the Gravity – a deluxe documentary film in desire for hyper-realism. Also, that explains why I described it often overwhelms the Gravity as a new monumental piece of 'film as experience' in terms of what is included within the movie.

As expected, one of the most impressive points of the film was the scene where a man interprets human beings as 'Homo Spirituality'; instead of 'Homo Sapiens'. The same reason probably applies to Richard Corliss, renowned film critic for TIME magazine, who selected this documentary film as the 7th in the 10 Best movies of 2011, saying "This is one of his most revealing and appealing journeys into the cave of the human soul". This simply tells it all for why you must watch this film.

DIRECTOR

WERNER HERZOG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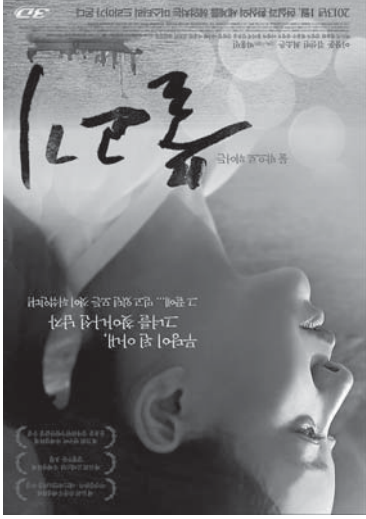
Herzog, born in German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est figures of the New German Cinema. While in his teens he had tough time and travelled to various exotic places from the age of fourteen. His passion for the film motivated him to make his first film when he was only seventeen years old, and travelled around the world at the age of eighteen. His produced over fifty films including: Signs of Life (1968), Aguirre, the Wrath of God (1972), Jeder für sich und Gott gegen alle The Enigma of Kaspar Hauser (1974), Fitzcarraldo (1982), Inevitable (2001), and Encounters at the End of the World (2007). Also, he is a prose writer, publishing 12 essays, and an opera director.

A FISH, 2011

Rep. of Korea, 2011, 98min, DCP, Color
Director: Park Hong-min
Cast: Lee Jang-hoon, Kim Seon-bin, Choi So-eun

I think I should start with talking about my personal affiliation to this film. My position in 2013 was Deputy Chairman for Asian Film Market in 2013, and based on such experience I took the role as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for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in 2014. However, throughout 2011 and 2012 I have spent all my time and efforts to find the creative and unique Korean films as a Korean film programmer. In the meanwhile, I was attracted to a non-commercial experimental film among those forty screeners submitted to the 16th BIFF in 2011. It was <A Fish>, which only cost 70 million Won (with 50 million Won sponsorship from the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where I myself graduated from) to shoot the film.

I was previously convinced that making 3D films would require a large amount of budget, and this is the reason why when I was told that Park Hong-min managed to produce the film with 100 minutes of running time with a slim budget that is less than 100 million won I was surprised very much. Subtitles for 3D film normally cost 20 million won, and Director Park simply made it successful through using his own personal desktop. What's more, he had no previous experience of making or learning 3D film production. Based on advice from people around including Producer Choi Seong-won, Park learned the 3D technology by himself and completed his first 3D debut.



However, its slim budget was not the main reason why the <A Fish> was invited to the BIFF Today-Vision for Korean films; the story itself was appealing as it succeeded in drawing the audiences' visual and sound sensation. Its story describes a professor (Lee Jang-hoon) who hears that his vanished wife (Choi So-eun) is on an island training to be a shaman according to the professor's private serviced detective (Kim Seon-bin). The professor drops everything and goes in search of her. On the other hand, the film also depicts a mysterious plot of the story by showing a couple of strange men going fishing in the middle of sea (Park No-sik, and Kwon Yong-hwan). This film is exactly something new and different, which I have been looking for.

The screener I watched for the <A Fish> was not 3D; it was actually 2D. According to what I understand, <A fish> was originally planned to be produced in 2D. However, Director Park had opportunity to attend a 3D film conference, and this motivated him to create his own 3D film in order to interpret and represent those cinematic symbols derived from the 3D effects. In other words, <A Fish>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3D films in terms of its origin and orientation. For example, whilst the Hollywood has focused on using 3D effects in enhancing the spectacle and realistic elements of the film, Director Park approached the 3D as one of the directing components which add extra cinematic message onto the film, suggesting a new possibility for how 3D films can develop. Like so, Director Park's effort to incorporate cinematic symbols derived from the 3D effects and hence to show his unique identity has impressed both ordinary audience and film experts by providing greater insights into the 3D films. Unfortunately, compared to its unique efforts, it was unfortunate that the film only managed to be viewed by 500 audiences at four screens nationwide with the number of showing amounting to 56 in total.

Attracted to its film in spite of its 2D effect, I attained the Director Park's personal contact information and called him to get to know more about him and his film. I was acknowledged that Park Hong-min received his degree in broadcasting and correspondence at Hallym University and his masters in directing at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 He then continued (now graduated) majoring directing at Dongguk University for Master's degree. His short film <Rock Scissors Paper> (2008) was in competitive section at Vgik Film Festival and <Generation 88>. In addition, he directed a short film <Harassing Girl> in 2010. I was so tempted to see the 3D version of the <A Fish> so I went to Director Park's studio to watch the film in 3D and I must admit that I was astonished with its exceptional 3D effects.

DIRECTORS

PETER GREENAWAY (1942-)

Born in Newport, Wales, Greenaway was raised by his parents whose father was an architect and mother was a teacher. He entered the Waltham-stow College of Art and by 1965, Greenaway had begun working as a film editor for the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As a writer he has written some novels. His major works include: The Draughtsman's Contract (1982), Drowning by Numbers (1988), The Cook, the Thief, His Wife & Her Lover (1989), Nightwatching (2007), and Goetzus and the Pelican Company (2012)

JEAN-LUC GODARD (1930-)

Born in Paris, Godard is one the most well-known directors of the nouvelle vague. He majored anthropology at the University of Paris (Sorbonne) but he was originally based on Ciné-mathèque Française and learned the film studies by himself. He then started off his life for the film by making critics contributions to the Cahiers du cinéma. His major works include: À bout de souffle (1960), Une femme est une femme (1961), Pierrot le fou (1965), Petites Notes A Propos Du Film 'Je Vous Salue, Marie' (1983), Eloge De L'amour: In Praise Of Love (1999), and Notre musique (2004)

EDGAR PÉRA (1960-)

Born in Lisbon, Edgar Péra had originally studied Psychology, but later switched to Film at the Portuguese National Conservatory – presently Lisbon Theatre and Film School (Escola Superior de Teatro e Cinema). He also works as a video artist compiling fictions, essays, or comics. His major works include: Janela (Maryalva Mix)/The Window (Maryalva Mix) (2001), Man-Theatre (2001), Muddt River (2007), and The Baron (2011)

FILM
CRITIC
JEON
CHAN-IL'S
CHOICE



CAVE OF FORGOTTEN DREAMS, 2010

Documentary, France, 2010, 90min, DCP, Color

Director: Werner Herzog
Cast: Werner Herzog (Narrator)

Selected as the best film of 2013 by the TIME and Empire magazine, Alfonso Cuarón Orozco's Gravity is a \$100 million budget 3D film and this demonstrated how audiences can be exquisitely inspired by the 'film as experience', instead of other components like story. It also made great commercial success as by drawing more than 3 million audiences in South Korea alone, while earning over 250 million revenues in North America alone. Of course, <Cave Of Forgotten Dreams, 2010> cannot be easily compared to the Gravity in its scale, but it is surely meaningful to be compared to the Gravity in terms of what is overwhelms the Gravity, for it is a new monumental piece of 'film as experience'. Living legend of 'New German Cinema', Werner Herzog, took a role in not only directing but also narrating for the film, although Herzog was nearly seventy in 2010 when the tremendous 3D history documentary was eventually completed!

In 1994, mysterious cave was first explored by a group of three speleologists near Gorges de l'Ardèche, southern France: Eliette Brunel-Deschamps, Christian Hillaire, and Jean-Marie Chauvet for whom it was named as well as to whom the film was dedicated. From their private expedition they discovered some of findings were crafted as much as 32,000 years ago. Besides, there were hundreds of animal paintings that have been catalogued, depicting at least 13 different species, including some rarely or never found in other ice age paintings such as mammoths, cave lions, panthers, bears, and cave hyenas.

The cave was immediately recognized as the most crucial place to evidence the prehistoric art, allowing only a certain limited number of selected researchers to enter the cave in order to protect the place of secret and mystery. That's why despite a lot of efforts from the other directors, no one else other than Herzog himself was able to receive special permission from the French Minister of Culture to film inside the cave; his strong willingness to film the cave moved the ministry. Having received permission, Herzog nonetheless had to film under heavy restrictions. All people authorized to enter must wear special suits and shoes that have had no contact with the exterior. Also, because of near-toxic levels of radon and carbon dioxide, nobody can stay in the cave for more than a few hours per day, allowing Herzog only six shooting days of four hours each.

In <Cave Of Forgotten Dreams>, apart from a series of mystery and magnificent sceneries, the director has well delivered its limited situation to the audience so that they can also sense a kind of sublime beauty through the screen. In fact, the limitation is what motivated the director and Herzog's film reminded me of Proto-Cinema as he experienced the first art of the mankind in three dimensions. He was looking for a very way that can clearly and plainly express his deep respect and awe-inspiring to the artists in the Old Stone Age. Hence, it seems obvious for him to decide to produce the film inside the cave in 3D along with natural sound effects and interviews from the experts outside the cave.

Even so, it cannot be entirely true to say the <Cave Of Forgotten Dreams> must be watched in 3D in order to fully benefit from the overall effects included in the film. Although without any doubt, it must be the most ideal way of taking advantage of the film, watching it with 2D still gives a good chance to enjoy what is included in the film. Herzog put emphasis not only on the

James Cameron's Avatar (2009) triggered fever for the 3D movies after its world-wide success, but 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3D movies produced since then, there was no such hit which can resemble that of Avatar. But then, The Great Gatsby (2013) was put on the screen as 3D film as opening film in Cannes Film Festival, while the Gravity (2013) by Alfonso Cuarón Orozco was chosen as the first 3D opening film in Venice Film Festival in its 70 years of history. The two films share a common feature that they all moved on from just focusing on a feast for the eyes based on techniques, and instead they highlighted sense of space and color that is only applicable in 3D films, demonstrating the scope of visual directing can be expanded potentially.

Besides, the directing elements for 3D films have been analyzed and become established more solidly. 3D films display the sense of space, which was not possible to implement on the 2D screen, and naturally incorporate such feature into the story, giving a new sense of experience to the audience. This is why the Special Opening Programs for the MMCA Seoul and an omnibus film by worldwide famous film directors. MMCA Seoul's selection, 3X3D (2013), is a film with theme of a city, directed by Jean-Luc Godard, Peter Greenaway, and Edgar Péra, and it displays fine experimental nature for 3D films.

In addition, film critic Jeon Chan-il recommends Werner Herzog's Cave Of Forgotten Dreams (2010) and Park Hong-min's A Fish (2011), which will stimulate the cinematic symbols as well as the audiences' three-dimensional imagination. Another film critic, Oh Dong-jin, recommends Pina (2011), and Step Up Revolution (2012), for showing the detailed vitality and reality of characters, only observable in the 3D films.

Lastly, there are eight short 3D films produced with sponsorship from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Korea Film Council (KAFA+ Next D), in which sense of liveliness and different cinematic experiments are absorbed. These short films are then rearranged using Anaglyph, a primitive state of the 3D. In other words, it applied an idea of Anaglyph, which uses images with red and blue filter in each eye, and the short films are then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themes of color: red, blue, and gray.

The program highlighted the idea of stereoscopic images and experimental nature attaining recommendation from three different people with three different themes, giving its name as 3X3D. Everyone is welcome to watch the carefully selected eleven films and I hope this can b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the audience to find out the appeals and possibilities for the 3D films.

Jeong Eun-young
Theatre Programmer for MMCA Seoul

The film is mainly based on Guimarães in Portugal, a city with two centuries of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city to be selected as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in 2012. Its first piece, <Just in time> by Peter Greenaway, uses multiple screens and computer graphics to illustrate his distinctive color effect and unique beauty of style, proving himself as a man of versatile talents.

The 3D omnibus film from the well-known directors well illustrates on how to take advantage of the 3D effect for the film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DMZ 52nd Critics' Week of the 66th Cannes Film Festival and was firstly introduced in Korea through Portuguese director Edgar Péra. It closed the Godard, British director Peter Greenaway and the famous Franco-Swiss director Jean-Luc 3X3D consists of three short films directed by

Portugal, 2013, 70min, DCP, Color
Director: Jean-Luc Godard, Peter Greenaway, and Edgar Péra
Cast: Miguel Monteiro, Nuno Melo, and Jorge Pren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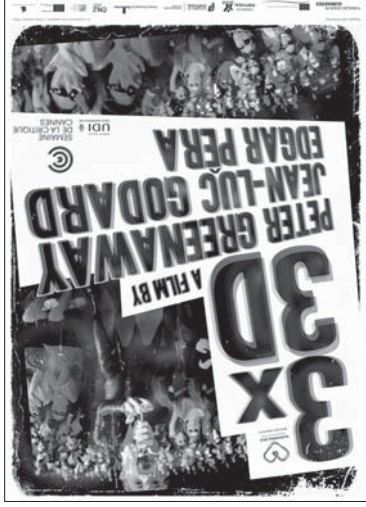
3X3D, 2013

MMCA'S CHOICE

Some say, "The history of film should be divided into two kinds; before Godard and after Godard", describing how many different kinds of experiments he has tried so far to stand up in arms over his father's films. In fact, Jean-Luc Godard's <The Three Disasters> interpreted the 3D (three-dimension) as three disasters. The film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to the 3D and film itself using segmented images and narrations.

The last piece, <Cinesapiens> by Edgar Péra, plays across film, media, gallery, and dance drama. He also participated in public talks with audience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described, "3D is alike to when silent films were first released. Since it offers a new point of view in how to see the world, I would consider it with much regard." The film shows how the audiences have evolved with an unprecedented style of film and ingenious genre.

Embodied with the humors and satire, the <3X3D> explores how unique and unconventional methods affect on senses of the audiences.



333X3D

**Special Opening Programs for
the MMCA Seoul, Jan – Mar 2014.**

Event
January 22 2014 (Wed) – March 16 2014 (Sun)

Venue
MMCA Seoul Theatre

Host



Sponsor



Entry
free (by order of arrival for those who have pur-
chased a valid ticket for the day)

Running time
Wednesday – Sunday (1:30 pm, 4:00 pm)

The Lumières held their first public screening of films on December 28 1895, at Salon Indien du Grand Café in Paris. This presentation featured some films, including Larve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t (1985) – commonly known as Arrival of a Train at a Station – and it frightened people as if the train was about to come out of the screen, making the audience to scare them off under the chairs. This showed that when re-creation of situations and focus beyond the frame can be combined with the imagination from the audience, films' aesthetics and possibilities can be recognized.

Film has developed itself that it can now natu- rally and realistically reproduce what human beings perceive their experience. From silent films to sound films, and from black-and-white films to color films, the development of films have been built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and acknowledgement in the scientific field, which eventually nowadays led to three-dimensional (3D) films, an attempt to totally reproduce people's experience. Peoples' eyes are far away by around 65mm in between, causing binocular disparity. This essentially contributes to feeling the three dimensional effect as two separate picture images from each eye are combined at brain, providing spatial impression in the form of three dimensional image based on its sense of dimension and perspective.